

사순 제4주일 (가해)

시편 23(22), 1-3, 3-4, 5, 6. (© 1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주 - 님 - 은 나 의 목 - 자 아 쉬 을 것 없 어 라

1. 주님은 나의 목자, 나는 아쉬울 것 없 어 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 시 고
 2.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주님의 이름 때문이 어 라 [제가 비록 어둠의 [재앙을 두려워
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[하지 않으리 - 니
 3. 주님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 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 시 고
 4. 저의 한평생 모든 날 에 호의와 자애 만 - 이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돌 우 어 주 시 도 다
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옵니 다 주님의 막대와 지팡이가
 저에게 위안을 주 나 - 이 - 다
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 니 저의 슬잔도 가 득 하 나 이 다
 저를 따르리 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 오 - 리 - 다

D.C.